

# 반도체 하락과 중동 종전 구도 위기, 3대지수 약세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 반도체 우려에 유가 급등, 경제지표까지 투자심리 압박

- 미 증시는 DOW -0.25%, S&P500 -0.45%, NASDAQ -1.16% 하락.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강세, 기술주, 산업재, 소재 약세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7%. 삼성전자 실적발표 이후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 양상. 모건스탠리는 투자자들이 하이퍼스케일러를 비롯,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반도체주의 상승 모멘텀 약화 진단. 아마존의 자금조달, MSFT 비용절감 위한 자체 AI 모델 적용 등도 투자심리 영향
- 한편 로이터는 중국 딥시크가 자체 AI 칩을 개발중이라 보도, 향후 엔비디아·화웨이 의존도 낮출 가능성 제기. 다만 퍼플렉시티 엔비디아(+0.7%) CPU 사용할것이라 밝히며 추가 영향 상쇄

##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 긴장 재차 확대, 국제유가 급등

-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카타르 LNG 운반선을 공격하며 미-이란간 종전 협상 기조 변화. UKMTO 에 의하면 지난 24시간동안 사우디 유조선 2척 포함 총 3척 피격
- 미국 및 중재국인 카타르·사우디 등 이란에 강력히 항의. 미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판매 승인 조치 철회에 이어, 강력한 군사 공습 개시 의지 표명
- 국제유가 상승 전환 WTI \$70.4(+2.8%), Brent \$74.2(+3.0%)

## 여전한 무역적자와 인플레이 우려, 유가 영향에 국채금리 상승

- 5월 미 무역수지 -776억 달러, 전월비 적자폭 확대되며 14개월래 최대치. 수출 -3.2%, 수입 +3.3%. 의약품·반도체 수입 확대 영향
- 6월 뉴욕연은 1년 기대인플레이션 3.5%→3.7%. 3년 기대인플레이션 3.1%→3.3% 오르며 유가 흐름에 이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확대
- 국채금리 상승 10Y 4.543%(+7.1bp) 2Y 4.181%(+6.7bp)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	내용
AMZN	아마존	+0.8%	차입 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5B 규모의 8개 트랜치 신규 회사채 발행을 공시 (424B5), 약 \$62B의 투자자 수요. 아마존측은 조달된 자금은 일반 기업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사업 투자지원, 향후 CAPEX 자금 조달,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밝힘
MSFT	마이크로소프트	+0.5%	AI 비용 절감을 위해 엑셀·아웃룩 등 주요 S/W 내 오픈AI·앤스로픽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구축한 MAI 모델로 대체 중. 현재 엑셀과 아웃룩에서 매주 수만 개의 AI 프롬프트가 내부 구축 MAI 모델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향후 다양한 앱으로 자체 AI 적용 확대 계획
RIVN	리비안	-18.1%	2분기 잠정 실적발표. 예상 상회한 매출 및 차량인도 가이던스에 불구, 7,500만 주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인한 지분 희석(약 6%) 우려에 추가 폭락
LLY	일라이릴리	+3.0%	JP모건이 투자이견 '비중확대' 유지, 목표주가 \$1,300→\$1,40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추가 강세, 추가 사상 최고치 경신. 마운자로의 글로벌 진출 확대, 미국 내 견조한 켈바운드 수요, 파운다요, 레타트루타이드 등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GLP-1 프랜차이즈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목표주가 상향 근거
SNPS	시놉시스	-1.3%	10여개 고객사에 자사의 반도체 팹 공정제어 S/W 제품군 - 장비 엔지니어링 시스템(EES) 및 결합 탐지·분류(FDC) 시스템에 대한 단종 결정을 발표. 이는 '25년 Ansys 인수 이후, 수익성이 높은 AI 기반 반도체 설계 솔루션으로 전사적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기 위함
SPCX	스페이스X	-6.8%	나스닥100지수 편입 첫 거래일. 상장 후 약 3주 만에 주가가 시초가(공모가)를 하회하는 \$149 수준으로 하락. 한편 대부분 글로벌 주요 IB들은 낙관적 투자이견 제시 중